

# 하늘사랑

www.kma.go.kr Vol.394

2014. April **4**

맛있는 계절

봄철 대표 별미 3

열린마당

국립기상연구소 '글로벌 제주시대' 개막  
90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물

포커스

2014 기상기후 사진 공모 '수상 작품'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 해양수산부의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유류오염사고로 검게 물든 바다가 국민들의 마음까지 번지지 않도록  
유류 사고에 대해 가장 먼저 예방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보상·복구는 신속하게, 예방은 철저하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로 만들겠습니다.



April 4



## Contents

### KMA Special Issue

정책 클로즈업 국가 경제의 성장엔진 '기상산업 R&D' · 02  
 맛있는 계절 봄철 대표 별미 3 · 04

### KMA About

열린마당 국립기상연구소 '글로벌 제주시대' 개막 · 06  
 봄날의 단상(斷想) · 08  
 우리 아이는 황금돼지띠! · 10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서~ 전주기상대!” · 12  
 올봄에 ‘유기농 체조’ 요가 어떠세요? · 14  
 90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물 · 16  
 대한민국 기상을 책임지는 종합예술작품을 만나다 · 18  
 하늘과 바다... LOVE TOGETHER! · 20  
 포커스 2014 기상기후 사진 공모 ‘수상 작품’ · 22  
 2030 솔로탈출 솔로의 로망 · 24

### KMA Hope

시간 소개 윈드프로파일러와 대기탐측 · 26  
 영화 속 기상이야기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 · 27  
 직장협의회 소식 직원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생겼어요! · 28  
 날씨만화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 29  
 포토뉴스 · 30  
 퀴즈 · 32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2014년 4월호(통권 394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4년 4월 10일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고유화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정관영 편집기획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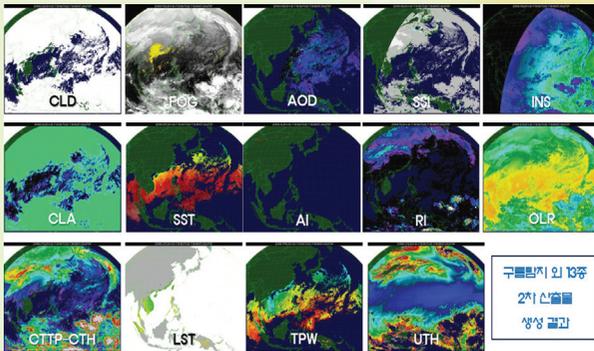
# 국가 경제의 성장엔진 '기상산업 R&D'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청은 창조경제와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상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증진과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상산업 R&D(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를 추진하고 있다. 기상산업 R&D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와 기상컨설팅 등 융합 기상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최첨단 IT를 기반으로 한 기상장비 국산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기상장비의 글로벌 브랜드로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1년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여 지난해는 35억 원, 올해는 60억 원으로 지원 규모가 사업 시작 첫 해에 비해 3배 증가됐으며 가시적인 연구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상산업 활용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날씨경영 컨설팅 방법론 연구를 통해 도시가스 수요분석 및 예측 솔루션을 개발

하여 사업화하였으며, 천리안 기상위성의 2차 산출물 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상위성 자료의 활용성을 높였다. '기상장비 핵심기술개발' 분야에는 우리나라 해양 및 산악 환경 조건에 적합한 친환경 소모성 표류형 부이와 독립형 산악기상관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천리안 기상위성 2차 산출물 생성 결과

### 초기자료 생산 수집

기상청 파랑, 해양 수치모델 Raw DATA



일본 등 국외 또는 기타 기관 수치모델 Raw DATA



해양 관측데이터 수집 (위성자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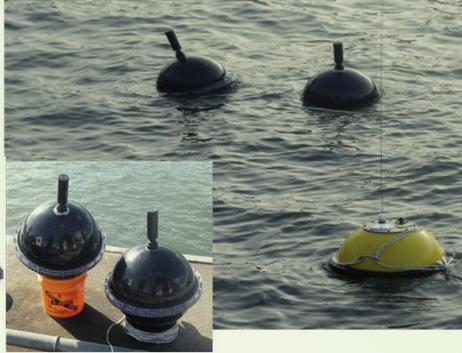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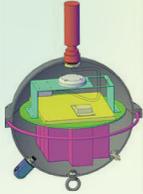
### 위경도별 상세 데이터 추출 및 DB화

- 5~8km 위 · 경도별 격자
- 수평공간, 연직공간 포함 3차원 격자 데이터 생산
- 3~6시간 간격 데이터
- 과거~예측자료까지 (해양관측 DB 대체 자료 및 예측정보 제공자료로 활용)
- 추출된 정보를 균질성 있게 DB화

### 디지털 해양기상 플랫폼 개발

- 특정구역, 기간에 대한 요소별 수평 공간 분포
- 특정구역, 기간에 대한 요소별 연직 공간 분포
- 특정 포인트에 대한 요소별 분포도, 시계열 등

해양기상 DB플랫폼 개발



표류형 부이 개발 및 해상계류 테스트



독립형 산악기상관측시스템 운영

이처럼 기상산업 R&D는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다양화하여 항공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세계공역예보시스템 활용기술 국산화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연무정보 예측서비스 개발, 장비 분야에서는 융합형 운고운량 자동관측기술 개발 및 태양복사 관측기술과 검교정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보다 능동적이고 중점적인 기상기술을 확보하고자 연 2회 연구개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R&D 주요 추진 정책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수립한다. 또한 사업 진행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통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사업 공고와 과제 접수를 진행한다. 특허선행기술조사 및 전문가 평가 수행 등 공정한 절차로 당해 수행과제(또는 기관)를 선정하고,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과제관리와 연구개발 결과의 사후관리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2014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은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 30일 동안 과제를 접수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상장비 핵심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하여 기상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기상산업을 국가 경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격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무게식 강수량계(고창기상대)



표류부이 해상투하(서해 먼바다)

# 봄철 대표 별미

# 3



완연한 봄날이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몸도 나른해지고 춘곤증에도 빠지기 쉬운 이때,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제철 음식으로 활기찬 봄기운을 만끽해보자.

편집진

## 황사엔 봄 향기 가득한 미나리

봄에는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비타민 소모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향긋한 풍미와 아삭한 식감으로 잃어버린 입맛까지 살려주는 것이 바로 ‘봄의 전령사’ 미나리이다.

특히 황사가 발생하는 봄철 건강관리에 좋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체내의 각종 독소 및 중금속의 해독과 정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무기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채소여서, 인스턴트식품 섭취로 인해 산성화된 현대인의 체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미나리는 질기면 맛이 떨어지므로 줄기가 통통하고 연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쌉싸름한 향과 아삭아삭 씹히는 질감이 살아 있는 미나리는 특별한 양념 없이 날것으로 먹어도 그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양념을 더해 조물조물 무쳐 먹을 땐, 봄나물 특유의 향이 겨우내 잠들어 있던 입맛을 완전히 깨워 준다.



피로를 한 방에 날려주는

## 주꾸미

봄철 대표적인 수산물인 주꾸미인데, 제일 맛이 좋을 때는 산란기를 맞아 더욱 쫄깃하고 고소해지는 3월 중순부터 5월까지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을 만큼 지금이 제철이며, 무기력한 봄철의 기력을 충전시켜 주는 식품의 대명사다.

주꾸미는 타우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실제로 낙지와 오징어보다 타우린 성분이 각각 2배, 5배나 많이 함유돼 있어 쉽게 피로해지는 봄철의 '힐링 푸드'로 손색이 없다. 또한 지방이 1%밖에 되지 않아 식이요법은 물론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주로 매콤하게 양념해 볶아 먹거나 채소, 버섯 등과 함께 샐러드로 먹는다. 이 외에도 굽거나 데쳐서 샐러드에 활용하기도 하고, 튀기거나 파스타에 넣어 먹기도 한다. 싱싱한 주꾸미를 고르려면, 살이 통통하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탄탄한 것이 좋다. 충남 보령 무창포항 일대에서는 13일까지 주꾸미·도다리 축제가 열리고, 태안 몽산포항에서는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축제가 계속된다.



대표 건강식품 '진시황의 불로초'

## 다시마

진시황제가 봉래섬에 신하를 보내 구해 온 불로초가 다시마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대표적인 봄철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의 채소'라 불리는 다시마에는 칼슘 성분이 많아 성장기 어린이나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에 도움을 준다.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섭취하면, 표피의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매끈하게 도 해준다.

말린 다시마에는 단백질 7%, 지방 0.5%, 탄수화물 44% 정도 들어 있고, 무기질도 약 28%나 포함되어 있다. 식이섬유의 일종인 알긴산도 가득 들어 있어 변비 개선에 좋고, 칼로리가 거의 없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많이 애용된다. 특히 다시마에 들어 있는 라미닌이라는 아미노산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시마는 찜을 싸 먹거나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조려 먹기도 한다. 된장국에 넣어도 좋은데, 지나치게 오래 끓이면 알긴산이 빠져나가 맛이 떨어지고 영양분도 손실되므로 주의한다. 다시마는 빛깔이 검고, 반듯하게 겹쳐서 말린 것을 골라야 좋다. 보관은 작게 잘라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된다.

## 국립기상연구소 ‘글로벌 제주시대’ 개막



김창기 /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인 봄이 시작되던 지난 3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국립기상연구소 신청사 개소식이 열렸다.

행사는 전통문화예술단체인 대륜동 풍물패의 청명하고 활기찬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고윤화 청장과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강창일 김재운 국회의원,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안중배 한국기상학회 회장, 박정규 WMO 아시아태평양국장, 양병식 서귀포시장 등 제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상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국립기상연구소 강당에서 진행된 개소식에서 고윤화 청장은 “지역 대학과 협력 프로그램을 개설해, 지역 인재와 같이 일하는 연구소를 만들 것입니다.”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제주혁신도시가 국립기상연구소를 기반으로 기상연구 분야의 중심지이자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축사를 하며 국립기상연구소가 앞으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후에는 김백조 정책연구과장의 진행으로 연구소의 발자취와 현재 구성원 및 연구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에 관람하였는데, 제주 지역 관계자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신청사 국기계양대 앞에서는 미래의 국립기상연구소 직원들에게 보내는 현재 직원들의 메시지를 담은 종지와 사진, 연구소의 주요 역사자료와 연구 성과자료, 그리고 지금을 대변해주는 물품 등을 소중히 담아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타임캡슐은 국립기상연구소가 100주년이 되는 2078년에 개봉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진 기념 테이프 커팅식에서는 많은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후 국립기상연구소 로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3차원 모델 뷰어를 통해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지구ON'이라는 3차원 가시화 시스템을 통해, 국립기상연구소에서 개발한 탄소추적모델, 기후변화 모델 등을 시연하며 기상기후연구에 있어 국립기상연구소의 역량을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개소식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아침부터 비가 오고 거센 바람도 불어, 과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소식이 많은 이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더 값지고 알차게 진행된 것 같아, 국립기상연구소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그려나갈 국립기상연구소가 활기차고 밝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같이 고생해 주신 분들, 그리고 변함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봄날 의 단상(斷想)



최이태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아침 출근길에 건넌 골목 담장 너머로 문득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었다. 남녘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백이 추운 겨울의 설움을 쏟아내는 듯 핏빛 선홍색 꽃망울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다. 또 한편에는 새하얀 자태로 '봄의 귀부인'이라 일컬어지는 목련도 목화솜 같은 순백의 꽃망울을 한껏 움츠리고 기지개를 켜려하고 있었다. 이름 모를 나무의 가지들도 연분홍과 연초록빛으로 물이 오르고 가지가지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계절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봄은 내 곁에 다가와 있었나 보다. 그리고 보니 이제 바람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머리 위에서 눈부신 빛의 조각을 쏟아내는 햇볕도 좀 더 따스해지고, 행인들의 옷차림도 제법 가벼워진 듯하다. 도시의 화색빛에 늘 젖어 살다 보니 겨울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 하는 계절의 감각도 점점 무뎠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삶의 여유가 없는지도 모르겠다.

사계절의 변화가 다 신통하고 묘한 것은 매한가지지만, 그래도 겨울에서 봄으로의 변화는 봄에서 여름으로의 변화보다 좀 더 격한 것 같다. 그러나 생명의 소멸을 보이는 쓸쓸한 가을로의 쿠데타적인 변화보다는 정감이 가고 설렘을 느끼게 한다. 오세영 시인은 <봄은 전쟁처럼>이란 시에서 '산천은 지뢰밭인가/봄이 밝고 간 땅마다 온통/지뢰의 폭발로 수라장이다/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푸르고 붉은/꽃과 풀과 나무의 어린 새싹들...' 이라고 대지에서 새싹이 돋고, 나뭇잎이 새로 돌아오고, 꽃들이 피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봄의 정취를 노래했다.

봄날 산야에 어느 순간 한 번에 돌아나는 각종 들꽃과 풀들의 모습을 지뢰가 터졌다고 표현한 시인의 시심에 동감이 된다. 또 박목월 시인은 가곡으로도 널리 알려진 <4월의 노래>라는 시에서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 든다'고 봄의 생명력을 찬양했다. 겨우내 땅속에서 숨죽여 봄을 기다리던 새 생명들이 씨앗의 단단함 속에 잔뜩 움츠렸던 몸을 기지개 펴고, 저마다 봄이 왔다 아우성치며 얼굴을 내민다. 죽은 듯 보였던 대지에 푸르름을 터하는 봄의 이러한 신기한 변화에 수많은 시인과 문인들은 봄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스한 봄볕에 대지가 조금 더 뜨거워진다면, 아지랑이도 하늘하늘 피어오르고 더 많은 이름 모를 들꽃들도 돌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니 시인이라도 된 양 내 마음속에도 그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설렘과 그리움이 봄날의 새싹처럼 돌아난다. 그래서일까? 나는 문득 어찌면 봄의 변화는 그리움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봄을 생각하면 예전에는 막연히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과 자연 변화의 설렘만을 생각했었다. 그리고 겨울 내내 나를 괴롭히던 추위가 떠나감에 기뻐했다. 또 너무 이른 투정이겠지만 다가올 여름의 무더위를 걱정하였다. 그리고 보니 많은 이들이 희망을 논하며 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득 '봄에 그리움을 논한다면 잘못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봄날을 살아가며 무언가 그림다하여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동안의 내 삶이 팍팍하여서 일까. 봄은 '생명, 희망', 여름은 '열정', 가을은 '풍요, 그리움', 겨울은 '인내, 휴식'이라는 사계절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든 건 아닌지 또 다른 씩씩함이 느껴진다.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사고를 해야겠다.

나는 무엇보다 봄날에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그 봄볕이 그림다. 여름의 별은 곡식들이 여물기 위해선지 정말 따갑다. 눈도 따갑고 피부도 따갑다. 그러나 봄날의 햇볕은 기분 좋은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 마치 삼라만상을 살살 어르고 달래서 얼른 서둘러 긴 겨울잠에서 깨라는 듯이, 또 아침에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의 다정한 손길처럼 부드럽다. 그리고 이러한 봄볕을 받아 정신 차린 대지가 쏟아 내는 봄나물들의 곳곳한 향도 그림다. 흐드러지게 꽃잎을 훑날릴 벚꽃들의 화려한 모습이 그림고, 겨우내 꽁꽁 얼었던 개울물이 녹아내리며 들려주는 맑은 노래 소리도 그림다. 시골의 농사 준비를 위해 논두렁을 태우는 매캐한 냄새도 그림다. 어찌 보면 한해살이를 위해 부지런을 떨고 있는 자연의 변화가 그리운가 보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차다. 그래도 완연히 온 것 같진 않지만 봄은 내 곁에 바짝 다가와 앉아 있다. 겨우내 매서운 바람을 맞고 가냘픈 가지를 떨던 아파트 화단의 산수유나무도 이제 곧, 잠자는 아가의 속눈썹처럼 앙증맞고 섬세한 노오란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다. 나에게 봄은 또 다른 그리움이다. 이제 나도 계절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해질 수 있게 내 삶에 조그마한 여유를 보태야겠다.

우리 아이는 **황금 돼지띠!**오희진 / 항공기상청  
정보지원과

내 딸 송보미는 2007년생 황금돼지띠이다. 막 태어났을 땐 누워서 꼬물꼬물 눈만 깜박이기에 ‘이 아이가 대체 언제 클까?’ 했다. 하지만 밤중 수유, 기저귀 갈기, 이유식 먹이기, 그리고 외로울까봐 남동생을 낳아주기까지 정신없이 하였더니, 어느새 보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닌가!



오늘 신문에서 보니, 작년에 비해 올해 입학생이 10.5% 많아졌다고 한다. 하긴, 인터넷에서 맘에 드는 책가방을 사줄까 했는데도 매진, 큰맘 먹고 좋은 외투를 사러 갔을 때도 이미 다 팔리고 없었다. 공부는 둘째 치고 맘에 드는 물건 사는 것부터가 경쟁인 나이인 것이다. 회사에서도 겨우 11명인 우리 과에서만 올해 아이를 입학시킨 동료가 4명이나 된다. 초등학교도 원래는 한 학년에 5개 반인데, 올해 입학생만 6개 반으로 늘어났다.

7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잘 돌봐 주었는데, 막상 학교에 보내려니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었다. 학교는 12시에 점심을 먹고 끝나기에, 내가 퇴근하는 6시까지는 학원을 순회하고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체력적으로 잘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1개만 운영되던 돌봄교실이 3개로 늘어 걱정을 덜게 됐다.

하지만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친구들과하고는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엄마가 직장 다녀서 정보가 늦어 애가 뒤처지는 않을까, 다른 친구들은 무슨 학습지를 볼까 등등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 몸속에 극성 치맛바람의 피가 흐르나 보다. 나의 극성이 애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비싼 물건이 애한테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는 참기 어려워지는 것이 부모 마음인가 보다.

요즘 청년 고용률이 30%밖에 안 된다고 한다. '88만원 세대'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가 않다. 보미가 만 20세가 되는 2026년에도 고용률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인 수치 말고도,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비논리적인 억측들을 믿도록 강요받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빠르게 자라기만도 벅찰 수 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깨에 짊어져야 할 짐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보미의 초등학교 입학은 첫 사회 진출일 것이다. 앞서 걱정한 것들이 너무 먼 미래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보미가 또래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큰 기쁨이라는 생각이 든다. 보미가 미래 사회의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해 주어야겠다.



### 보미 에피소드

한번은 보미가 떼를 쓰다가 할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게 됐다.

**할머니 :**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 진짜 누굴 닮아 저러는 거야?

**보미 :** 할머니!



인터넷으로 주문한 보미의 옷이 배달되었다.

**보미 :** 와~ 엄마 최고!

**엄마 :** 보미야, 아빠도 최고지? 먹을 것도 사주고 과자도 많이 사주잖아?

**보미 :** 아니, 아빠는 최고 아니야.

**엄마 :** 왜?

**보미 :** 과자는 몸에 나쁜잖아.

대화를 나누던 중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아빠 :** 우리 보미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

**엄마 :** 보미야, 의사 남편은 어때?

**보미 :** 싫어.

**엄마 :** 왜?

**보미 :**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함는 거야.



# “업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전.주.기.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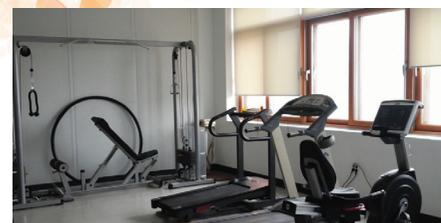
전하리 / 전주기상대



현업실



기상극장



체력단련실

## #1. 2013년 12월 30일

아침 7시 30분 출근 시간. 여느 때와는 달리 회사 분위기가 싱숭생숭하다. 사무실이 헹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짐을 옮기느라 분주하다. 여기저기 짐들이 쌓여있고, 남아있는 것은 최소한의 장비와 현업실뿐!

*‘아, 오늘 청사 이전하는 날이지!’*

이렇게 짐들이 꾸러지고 조금씩 비워져 가는 공간들을 보니, 드디어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실감 난다.

1918년에 전주관측소로 시작하여,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서 95년 동안 전라북도의 날씨를 책임졌던 전주기상대. 전주, 남원, 정읍 등 11개 시·군의 동네예보와 전북 해상의 기상특보 업무를 수행하는 전라북도 지역 기후변화센터이다.

그동안 보관해 왔던 여러 관측 기록지들과 자료들을 옮기다 보니, 전주기상대의 오랜 역사와 자취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긴 시간을 함께한 터전을 그대로 남겨 놓은 채 새로운 청사로 떠나려니 서운한 감정이 몰려왔다.

*‘첫 발령을 받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들었는데...’*

그래도 남노송동에서의 마지막 관측을 내가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더욱더 도약할 기상대를 기대하며 부푼 마음을 안고 새 보금자리로 향했다.

## #2. 신청사 이모저모

새로운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지하 1층에는 측기검정실, 지진계실, 전기실 등 장비실이 있다. 1층에는 민원실과 홍보실, 교통방송실, 그리고 기상극장이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곳이 기상극장이다. 이곳은 기상대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시청각 교육과 더불어 전주기상대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직원들과 언젠가 영화도 한 편 볼 수 있지 않을까? ^^

2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고, 3층에는 예보를 담당하는 현업실과 체력단련실, 그리고 식당이 있다. 대형 영상 화면을 갖춘 현업실은 전보다 훨씬 넓고 쾌적해져서 앞으로 예보 정확도가 쑥쑥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체력단련실에서는 쉬는 시간에 개인 운동을 할 수 있고, 탁구나 당구도 즐길 수 있다. 점심시간이면 공들이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와 직원들의 신나는 웃음소리가 들려 사무실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진다. 나도 이참에 당구를 배울 생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식당이다. 예전 청사에서는 마땅히 음식을 해먹을 공간과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을 공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했는데, 신청사의 식당에서는 매일매일 어머니 손맛이 담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점심뿐 아니라 저녁, 그리고 주말과 야간 근무 때에도 언제든지 챙겨먹을 수 있게 항상 반찬과 밥이 구비되어 있어, 끼니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하는 메뉴를 말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관사 생활을 하고 있는 내게는 한 끼를 해결하는 게 큰일이었는데, 이제는 배고프지 않게 든든한 밥심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3. “하리씨가 벽지랑 타일 골라 봐요~”

신청사를 준비하면서 계장님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 중 신청사에서 가장 오래 근무할 사람이 바로 나라면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라는 배려였다. 이 말씀에 신청사에 대한 애정이 팍팍 솟았는데, 결국은 내가 고른 벽지와 타일은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 크크.

앞으로 새로운 터전에서 95년의 긴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며 대국민 기상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게 될 전주기상대를 기대해 본다. 나 또한 새로운 청사의 첫 구성원으로서 기상대에 더욱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다.



전주기상대 신청사



# 올봄에 '유기농 체조' 요가 어떠세요?



성인철 / 예보정책과

완연한 봄이 왔다. 이젠 봄나들이를 위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동물 처럼 기지개를 켜야 할 때이다. 따스한 날을 맞아, 겨우내 움츠려든 몸을 깨워주는 요가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 요가는 봄맞이 몸풀기 프로그램

요가는 수영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듯 몸풀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자세와 호흡 조절을 합친 효과적인 스트레칭이고, 노화를 막고 최상의 컨디션을 갖게 해 주는 맨손체조이다. 별도의 운동기구는 필요 없고, 그저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날렵한 동물들의 몸짓을 흉내 내기만 하면 되는 '자연산 체조'이다. 대표 자세로는 깨끗하게 서서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 주는 '나무 자세', 무릎을 굽히고 네발로 기어가는 '고양이 자세', 하체는 바닥에 붙이고 상체와 고개를 천정으로 뻗어 올리는 '코브라 자세', 허리와 하체를 단련시켜 주는 '독수리 자세' 등이 있다.

## 다이어트 아닌 체형 바로잡기

간혹 요가를 살 빼는 운동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직접 요가를 해봐야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잡아서 몸매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스마트한 운동'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요가의 자세들은 우리 몸의 빼놓아진 부분은 잡아 주고 근력은 키워 준다. 또한 몸 구석구석을 긴장하게 하고 운동을 유도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준다.

## 몸이 유연해야 할 수 있다?

요가를 시작하기 겁내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몸이 벅벅해서..."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요가는 몸이 유연한 사람들의 운동이 아니다. 왜냐하면 걸보기 유연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가는 뼈와 근육에 자극을 주고 뭉친 걸 풀어서 잘 작용하게 만드는, 우리 몸에 내부적 유연함을 주는 운동이다. 그러니 자신의 몸이 뻣뻣하다고 느낀다면 더더욱 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강아지 자세



비둘기 자세



활-스트레칭 자세

### 치유력을 키워주는 건강 체조

요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이 운동을 왜 시작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허리가 아파서라거나 어깨가 결려서라고 답하는 이들이 많다. 나 역시도 40대 초반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던 허리디스크 통증을 벗어나려고 요가를 시작했다. 그때는 허리가 아픈데 괜히 요가를 했다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다. 그래도 다른 처방들이 별 효과가 없어 시작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내 허리는 오히려 10년의 나이를 거꾸로 먹은 것 같다.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원리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운동으로 치유한다.”** 바로 이것이다. 요가시간에는 주로 허리를 풀터처럼 접었다가 활처럼 뒤로 펴서 늘리고 배배 끈다.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근육과 관절에 자극을 주고 운동을 시켜서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아픈 부위에 자극을 줘서 치유력을 키우고 약해진 근육을 보강시켜 주는 것인데, 나의 허리디스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 물론, 전문 강사의 지도가 꼭 필요하다.



독수리 자세



고양이 등 펴기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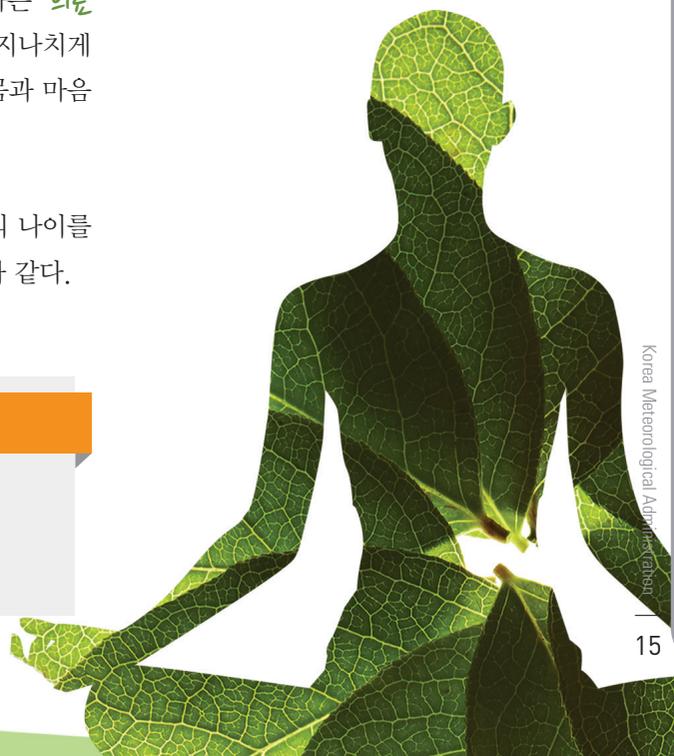
### 현업자들에게 딱 맞는 운동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는 자세를 바로잡는 교정운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밤새워 일기도를 분석하는 예보관들은 물론, 운동이 부족하여 어깨와 허리가 취약한 사무직 종사자에게도 딱 어울리는 운동이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체육학 대사건’에서 보니, 요가는 약을 쓰지 않고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고자 하는 **‘의존적 체조’**라고 한다. 정말 맞는 말이다. 요즘처럼 병원과 약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심신이 더 허약해져 가는 시기에, 요가를 통해 내 몸과 마음을 튼실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올봄엔 가볍게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유기농 체조’** 요가로 몸의 나이를 극복해 보자. 요가를 한다는 건 바로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다.

**기상청 요가 동호회 ‘요가요가’ 소개**

- 매주 3회(월, 화, 목) 점심시간마다 강사의 지도 아래 요가를 수련
- 2006년 봄에 창단돼 올해로 9년째이고, 현재 회원은 30여 명
- 가입 문의 : 회장 성인철, 총무 김현미



# 90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물

점심시간만 되면 대전지방기상청의 여직원들이 사라진다.  
사무실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이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안지현 / 대전청 기후과

“안주임 드디어 새로 할 때가 됐네! 호호호~”  
“네~ 얼른 키트 구매해서 시작하자고요!”

‘시끌시끌, 왁자지껄, 깔깔깔’ 소리가 들리는 곳은 다름 아닌 여직원 쉼터, 일명 ‘골방’이다. 그녀들은 그동안 이곳에서 코바늘로 뜨개질을 하며 수세미, 얼굴수건, 찻잔받침 등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다.

그러다 지난해 겨울부터는 대바늘로 종목을 변경하여 모자뜨기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남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대대적으로 동참했는데, 모두 ‘세이브더칠드런’의 「모자뜨기 캠페인 시즌7」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이 캠페인은 1년 365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0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3월 초순에 시즌을 마감한다. 대바늘, 실 등으로 구성된 키트를 구매해 모자를 뜨서, 3월 초까지 완성된 것을 세이브더칠드런으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모인 모자들은 잠비아, 에티오피아, 타지키스탄의 신생아들에게 전달된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보온이 필요한 신생아들에게 전달해주는 참여형 캠페인인 것이다. 아프리카에 왜 털모자를 보내 주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털모자이다.

작년 12월, ‘대전지방기상청 사랑나눔회’의 이름으로 단체 참여를 신청하였다. 총 82개의 실을 구매해 3개 부서의 직원 및 가족들이 함께 모자뜨기를 시작했다. 뜨개질을 좋아하는 나를 비롯해 처음 도전하는 직원, 또 잘하진 못하지만 좋은 일이니 적극 동참하는 직원 등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안고 열심히 모자를 짰다. 그 어머니에 그 딸 아니랄까봐,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어머니도 바로 참여를 했는데, 20개 가까이 모자를 짰 일등 공신이 되셨다.



골방에 모여 모자를 뜨는 직원들

“아, 조금만 더 뜨면 되는데!”

“2코 남았는데 실이 부족해~ 혹시 빨간색 실 있는 사람?”

짧은 점심시간에 모여서 모자를 뜨다 보면 어느새 1시가 가까워지곤 했다. 여기저기서 아쉬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뜨개질도 일종의 중독이어서 한번 실을 잡으면 손에서 놓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뜨개질을 하곤 했는데, 네 살 아이를 재운 후에야 편히 할 수 있었다. 그러다 어떤 날은 같이 잠드는 바람에 아침에 눈을 뜨며 아쉬워하기도 했다. 재우기 성공했을 땐, 모자를 뜨다 금방 새벽 2~3시를 맞기도 했다. 이젠 불을 꺼놓고도 뜨개질이 가능한 정도가 됐으니, 이 정도면 ‘뜨개질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전지방기상청 사랑나눔회 단체 사진

3월 초까지 완성된 모자를 세탁하여 밀봉한 후 배송해야 하기 때문에, 2월 중순에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기간 내 완성이 힘들 것 같은 실을 수거하여 정예 요원들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거의 실 1몽치당 모자 1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매한 실은 82개였다. 그런데 남은 자투리 실까지 짝짝 모아 연결해 보니,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완성된 모자가 무려 90개나 되었다. 3코를 남겨 놓고 실이 부족해서 방금 뺀 83코를 다 풀 뺐도 했는데, 2cm 가량의 자투리 실들을 붙여서 완성한 적도 있었다.



내가 만든 12개의 모자

모자 완성을 코앞에 뒀다가 잘못 짜서 모두 풀기도 하고, 도저히 사람이 쓸 수 없는 사이즈여서 다시 풀고만 모자도 있었다. 하지만 소중한 첫 작품의 탄생에 기뻐하며 계속하다 보니, 어느새 90개의 모자가 완성되었다. 그 중 내가 만든 모자는 무려 12개! ^^ 집으로 가져가서 손세탁을 하고, 1개씩 밀봉하는 작업을 아들과 함께 하니 더욱 즐겁고 보람 있는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사람이 모두 생김새나 성격이 제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만든 90개의 모자 역시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모두 달랐다. 그러나 그 모자를 뜨면서 모자의 주인공이 될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고, 완성된 모자를 보면서 느낀 뿌듯함과 감동도 그러했다. 3개월 동안 함께 모자뜨기를 하다 보니 직원들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은 물론이다. 정말 90개의 모자를 함께 만들어 낸 동료들이 무지 고맙고 자랑스럽다.

내 자식 같은 모자들을 쭉 모아놓고 함께 사진을 찍던 그 순간이 그렇게 즐겁고 뿌듯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만든 모자에 담긴 사랑으로 90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 동료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모자뜨기 '일등 공신'인 어머니



모자 밀봉 작업하는 아들

# 대한민국 기상을 책임지는 종합예술작품을 만나다



심연 / 기상콜센터

지난 3월, 기상청의 제일선에서 기상정보를 전달하는 기상콜센터 직원 45명이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를 방문했다. 견학 일정을 준비하는 한 달여 동안 각 센터의 담당자들과 통화하면서도 느꼈는데, 정말 고맙게도 버선발로 나오다시피 한 손님맞이였다.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위성수신 업무의 역사와 대한민국 제1호 통신·해양기상 위성인 천리안 위성 발사 배경, 정지궤도 위성과 극궤도 위성의 특징 및 장단점, 위성관측과 기상예보 활용 범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2010년 6월에 발사한 천리안 위성의 업무 연한이 종료되는 2018년을 대비해 준비 중인 차세대 후속 정지궤도 위성의 특징을 통해, 명실공히 위성지원국으로의 위상과 한반도의 기상기후를 감시하는 센터로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위성센터가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든든한 지역사회에 멘토가 되고 있다는 귀뜸도 있었다.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서는 슈퍼컴퓨터 도입 배경과 수치예보의 역사, 슈퍼컴퓨터 3호기 특징과 수치예보모델의 종류, 개발도상국 지원 현황을 들었다. 2020년 개발 예정인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반도의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보다 정확한 기상정보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1998년에 발생한 지리산 폭우를 계기로 슈퍼컴퓨터 도입이 시도됐고, 2005년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과 2008년 수치예보센터 설치 이후 동네예보를 신





국가기상위성센터



설했다는 설명에서, 2008년 10월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한 기상콜센터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보면 슈퍼컴퓨터와 동네에 보, 그리고 기상콜센터의 역사는 같이 흐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견학은 2011년 4월 첫 방문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두 센터 모두 **기상청의 눈과 심장이며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안위를 책임지는 센터**이기에 우리나라의 국력을 느끼게 하고 애국심마저 갖게 해 주는 방문이었다.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 슈퍼컴퓨터에 대한 날카로운 설명과 기상콜센터에 거는 기대까지 전해 준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맛있는 한정식과 기념품, 그리고 액자에 넣은 기념사진까지 세심한 배려가 가득한 환대를 받고, 안 그래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늘사랑」을 통해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위험기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견학 인원을 제외해도 원활한 기상상담을 할 수 있게 도와 준 대한민국의 안정된 3월의 하늘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다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곳곳에 눈발이 날렸는데, 다행히 문의가 많지 않다는 전문위원님과 통화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기상콜센터가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인천기상대, 추풍령기상대, 서산기상대, 안면도 기후변화센터, 수원기상대, 파주기상대, 고창기상대, 제주지방기상청, 고산기상대, 국가태풍센터,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를 다녀왔다. 이번 가을에는 어느 관서를 방문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기상콜센터와 유대를 더 돈독히 할 기상관서, 신청 접수 받습니다! ”

# 하늘과 바다...

## LOVE TOGETHER!



김진수 / 수협중앙회  
동해어업정보통신국

동해어업정보통신국은 신속한 해상 구조 업무와 다양한 조업정보 제공,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출어선의 입역·출역관리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업의 특성상, 기상정보는 어업인의 재산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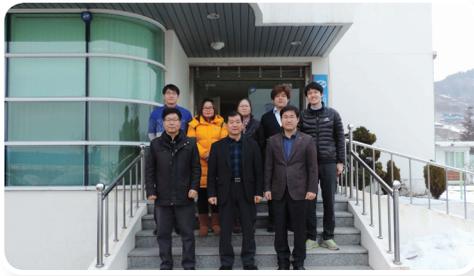
어업정보통신국은 어업인들에게 기상정보 방송 실시와 기상특보 문자서비스 발송 등을 통해, 원활한 어선 안전 조업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는 간행물 「하늘사랑」은 기상청 동향과 예보시스템의 변경 소식 등을 속속들이 알려줘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그중에서도 지난 1월호의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창조적 항공기상서비스 개발'에 대한 내용이 참 인상 깊었다. 기상청에서 우리나라에 이륙·착륙하는 수백 편의 항공기에 대한 방대한 운항정보와 세계 각국의 공항정보를 수집하여, 수요자들이 비행편만 입력하면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국산 콘텐츠를 개발하였다는 점이 놀라웠다. 우리 기상예측모델을 기반으로 전 세계 200여 곳의 주요 취항 공항에 대한 기상예측모델을 구축하여, 수요자의 니즈를 100% 충족시키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자정부 실현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우리나라 기상서비스의 우수성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러한 자랑스러운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어업인들에게 우리나라 기상예보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기상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 또한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특성화시스템들이 항공만이 아니라 해양 분야에도 활용되어, 해외로 조업을 나가는 선박들이 해당 국가의 기상정보를 우리나라의 기상시스템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는 기상청은 물론, 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하늘사랑」 일면에 해양 분야의 기상 관련 IT기술 적용사례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동해어업정보통신국-동해기상대 소통간담회

어선 안전 조업지도를 위해 동해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매월 1일 ‘어선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 때, 각 항구와 포구를 찾아다니며 구명조끼 착용 홍보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동해기상대, 군부대, 동해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을 초청하여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해기상대는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고충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등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파트너십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동해기상대의 기상정보 제공시스템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 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 참석, 또한 어떻게 하면 기상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유용하게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왔다. 최근 개최한 동해기상대와의 업무협의회는 자칫 단절될 수 있었던 두 기관의 유대관계를 이어나가며, 어선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부이 보호 홍보 등을 위한 업무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이후 가졌던 조출한 회식자리는 두 기관의 업무적인 화제에서 벗어나, 인생 선후배 사이처럼 허물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다. 가장 재밌었던 것은 나와 같이 기상대 직원들 중 몇 명도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취미활동을 하는지와 혼자 재밌게 사는 방법 등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 나누다 보니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두 기관이 업무 내외적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자리는 무척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각자의 역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깊은 유대관계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이러한 우리의 ‘하늘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 제31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 ‘수상 작품’



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3.23)을 맞이하여, 일상 속에서 만나는 날씨의 모습을 희로애락으로 담아 '날씨, 당신의 기억이 되다'라는 주제로 사진을 공모하였다. 총 1,874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이 중 최우수상 1점(환경부장관상,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점(기상청장상, 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4점(기상청장상, 상금 각 50만 원), 입선 43점(상금 각 10만 원)을 선정하였다. 올해 입상한 50점은 역대 입상작 100점과 함께,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시 시민청에서 특별 전시되었다.



[우수] 한라의 햇무리 / 서정희  
제주의 하늘을 가득 메운 '자연이 준 선물'인 한라산의 햇무리



[우수] 해무 / 김택수  
거문도 바닷가에 아침햇살이 떠오르자, 하늘로 올라가는 회오리 형상의 해무



[장려] 렌즈구름의 위용 / 이창형  
8년 만에 나타나 제주 산지향의 상공에서 위용을 자랑하는 렌즈구름



[최우수] 드림성당의 토네이도 / 강태욱 부산 기장 바닷가에 눈보라를 몰고 온 토네이도 같은 회오리바람



[장려] 얼음강 건너기 / 임홍철  
공공 언 한탄강 위로 얼음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



[장려] 설상가상 / 강태수  
24년 만에 1m 넘는 눈이 내려 도시 기능이 마비된 강릉



[장려] 제주의 별하늘 / 김대석  
가시거리가 30km인 날 보게 된 제주의 황홀한 별하늘과 나무



# 솔로의 로망

누구나 연애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서른을 조금 넘긴 '솔로 3년차'이자 평범한 회사원인 나 역시 여행지에서의 로망을 꿈꿨다. 낯선 곳에서 멋진 풍경과 함께 새로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은가!

얼마 전, 그런 기대를 안고 제주로 여행을 떠났다. 그때 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친구들보다 하루 더 머물게 됐는데, 전부터 하고 싶었던 한라산 등반을 위해서였다. 혼자 하는 등산은 처음이라서 조금 두렵긴 했지만, 평소 산행에 자신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를 놓칠 순 없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전날 비가 왔던 터라 날씨도 좋았고, 산뜻한 바람도 솔솔 불어왔다. 산행 중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경치는 더더욱 기분을 들뜨게 하였다. 가벼운 산행이 아니어서 다리에는 힘이 좀 들어갔지만, 입에서는 절로 '룰루랄라' 휘파람이 나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을 홀로 올라가다가 순간, 내 옆을 지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에는 손을 꼭 붙잡고 올라가는 커플, 부부, 가족들도 있었다. 그제야 나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짝 쓸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숲 속의 나무를 친구 삼아, 새소리를 연인 삼아 씩씩하게 올라갔다.

어느새 정상에 가까워지자, 눈앞에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이 순간을 어떻게 놓칠 수 있으랴. 얼른 사진을 찍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며 부탁할 사람을 찾았다. 사진은 모름지기 최신 기기에 능숙한 젊은 사람이 편한 법인데, 마침 내 또래로 보이는 혼자 온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저기, 사진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한 장 부탁할게요.”

흰칠한 키에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밝게 웃는 그.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하지만 아직 산행길이 남았기에 서로 사진만 찍어주곤 아쉽게 돌아섰다.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내내 그 남자도 뒤에서 오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신경이 쓰였다. 그래도 혼자 정상에 도착해서 백





룩담 사진도 찍고, 단체 등산객들 사이에서 김밥도 먹었다. 그런데 혼자여서일까? 지금까지 먹은 김밥 중에서 가장 맛이 없었다.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을 눈에 담고, 제주도 푸른 바다를 한껏 느끼면서, 다음엔 꼭 연인과 함께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경치를 물씬 느낀 후 하산을 하기 시작했다.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사진을 부탁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이번에도 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진을 한 번 더 찍게 되면서 우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같이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가파른 곳을 내려올 땐 서로 잡아도 주고, 좋은 풍경도 같이 보다 보니, 아까의 외로움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얘기를 나눠 보니, 여행을 좋아하는 것과 취미생활 등이 나랑 비슷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자꾸만 전해졌다.

### ‘내가 꿈꾸던 로망이 이뤄지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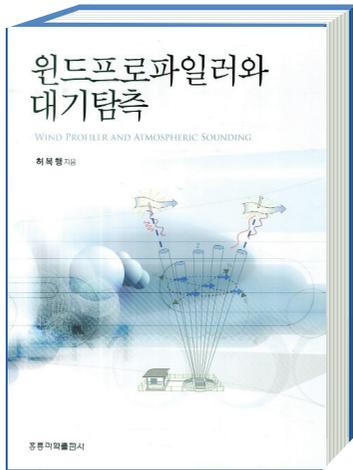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향긋했고, 하늘은 맑았으며, 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런데 산을 거의 내려왔을 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가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것이다. 혹시나 군대와 휴학 등으로 늦게 졸업한 것은 아닐까 했지만, 곧 군 입대를 앞둔 상황인 것도 알게 되었다. 해외에서 일찍 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한국에 들어온 22살의 유학파 동생이라니! 그 역시 나의 나이를 듣고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그도 내가 자신의 또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 그의 너무도 성숙한 외모를 탓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한참이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그놈의 로망을 탓해야 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면, 그나마 어려보인 나의 죄(?)라고 넘어가면 되는 것일까.

아무리 인연에는 나이 차이가 없다고는 하나, 이제 결혼 상대를 찾아야 하는 나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열 살이나 어린 친구를 로망의 상대로 잠시나마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기도 했다. 그렇게 나의 짧은 로망은 반나절 만에 끝나 버리고 말았다. 로망은 로망일 뿐,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



# Book / 윈드프로파일러와 대기탐측



**윈드프로파일러**는 수십 cm~수십 m 파장의 전파를 대기로 방사하고, 대기에서 다시 산란되어 오는 전파 신호를 검출하여 기상정보를 얻는 **원격탐사장비**이다. 윈드프로파일러는 수 분의 시간분해능과 수십 m의 공간분해능으로 상공의 바람자료를 제공하며, 송신파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대기불균질로 산란되어 온 전파 신호도 수신한다.

이 관측자료는 해륙풍, 산악파, 관성중력파, 대기경계층 등과 같은 작은 규모의 기상현상에 대한 바람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대류경계층고도, 대류권계면고도, 전선 등과 같은 불연속면과 난류층을 관측한다. 윈드프로파일러의 우수한 성능 중 하나가 난류와 강수입자에서 산란되어 온 두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높은 시공간분해능으로 빗방울크기분포와 강수구조도 분석할 수 있다.

대기과학에서 윈드프로파일러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일기예보를 위한 현장업무와 연구관측에 윈드프로파일러가 도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원리나 관측자료 특성을 쉽게 설명하는 문헌이 적고, 윈드프로파일러를 활용하여 대기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 드물다.

이 책은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윈드프로파일러의 발달사, 관측 원리, 시스템 구성, 그리고 신호처리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한 번은 접하게 되는 **오류 관측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기과학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윈드프로파일러의 관측자료를 활용한 **기상현상의 분석과 연구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저자 : 허복형 1984년에 경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 입학하여, 2001년에 같은 대학교 천문대 기과학과 대학원에서 대기과학(레이더기상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기후변화감시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 겸임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다.

# 화산 폭발로 사라진 도시 '폼페이'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한 순간에 사라진 도시가 있다. 바로 '폼페이'이다. 최근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폼페이:최후의 날>이 개봉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최고의 전성기였던 도시

폼페이는 고대 로마의 지배를 받아, 로마 귀족들의 삶과 휴양 문화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주택, 벽화, 동상 등으로 약 2,000년 전 당시의 삶을 상상할 수 있으며 신전, 시장, 시청 등도 있어 종교, 경제, 정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18시간 만에 사라지다

베수비오 산은 폭발 당일 아침부터 거대한 구름이 생기면서 폼페이, 헤르쿨라네움, 오프론티스 지역과 캄파니아 해변을 따라 나폴리까지 지진이 발생하였다. 폼페이는 무수히 쏟아지는 화산재와 엄청난 돌로 인해 18시간 만에 자취를 감추었고, 화씨 1,830의 고온의 화산재가 시속 450마일로 덮쳐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다시 깨어나는 도시

1748년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돼 현재 80% 정도가 복구된 상태이다. 출토품은 나폴리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폼페이의 옛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것은 엄청난 두께로 쌓여있던 화산재 때문이다. 화산재가 장소에 따라 1m에서 7m까지 쌓여 있는데, 평균 높이는 6m라고 한다.

## 구름 기둥으로 인한 피해

화산 구름 기둥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산비탈을 타고 주변으로 흩어진다. 시속 130~180km로 빠르게 주변을 덮치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다. 또한 온도는 500~700도에 달해, 구름 기둥이 닿는 곳은 화재가 발생하고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다. 특히 이 뜨거운 재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호흡기 점막이 손상된다. 그래서 용암보다 화산 구름 기둥이 훨씬 더 위험하다.

##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는?

기상청은 화산재의 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기반의 화산재 확산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성자료와 지진파 등을 이용하여, 백두산 감시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연은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기상청의 이러한 화산 감시체계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순 있다.



# 직원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생겼어요!

기상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립기상연구소가 제주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협의회 사무실을 8층으로 옮겼다. 더불어 직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그마한 휴게실도 마련하였다. 창가에서 외부 전경을 바라보거나,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였고, 향기로운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원두커피머신도 갖추었다.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한 곳, 때론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갔으면 한다.



## 쾌적한 휴게실 사용을 위한 Tip

- 회의 등 업무용으로 활용 금지
- 쾌적한 환경을 위해 음식물 반입 않기
- 커피머신은 협의회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
- 비회원은 커피값을 모금함에 넣기
- 책, 화분, 인테리어 소품 등 기부 가능
-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 개인컵 사용



# 내리마음

## 35.꽃가루농도 위험지수

와~ 개나리와 진달래가 다 피었네!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제주 7개 도시를 중심으로 꽃가루 농도 예측 정보를 제공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93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하여 제공한다더라고.

또 꽃가루는 한 지역이라고 농도가 다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을 세분화해 상세하게 알려준다니 훨씬 도움이 되겠지!



### 2014년 '세계 기상학의 날' 기념식(3.20)

세계 기상학의 날(3.23)을 맞아 '기상과 기후, 청소년의 참여로부터'를 주제로 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전국 대기과학과 학생 대표 7명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 기상레이더 운영 기술 교육(3.3~14)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5개국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레이더 운영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기관 견학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 조주영 차장 명예퇴임식(3.10)

지난해 4월, 첫 여성 차장으로 임용됐던 조주영 차장이 명예퇴임하였다. 조 차장은 1984년 기상직 6급 특채로 기상청에 입사하여 기후과학국장, 강원지방기상청장 등을 역임했다.



### 제4차 한미기상협력회의(3.17 ~ 18)

미국해양기상청과 기상협력회의를 열어, 14개 분야의 기술 공유와 인적 교류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자료 공유와 기후예측서비스 기술 협력, 수치예보 성능 향상 기술 공동 개발 등이다.



### 기상 교육 훈련 전문가 패널 회의(3.24 ~ 28)

전 세계 기상 교육 훈련 전문가가 서울에 모여, 세계기상기구 회원국의 교육 활동과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는 전 세계 기상 교육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기상기구에 제안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 제31회 기상기후 사진전시회(3.25 ~ 4.3)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기상기후 사진 공모' 입상작 50점과 역대 입상작 100점이 특별 전시되었다. 사진전 개막식은 KBS 이설아 기상캐스터의 진행으로 개최됐고, 주말엔 SBS 신소연, 조경아 기상캐스터의 팬 사인회도 열렸다.



### 한중일 3국 언론인 기상청 방문(3.31)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주관하는 '제1회 한중일 언론인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국의 기자교류단이 기상청을 방문하였다. 기자들은 환경·기상 통합예보실을 찾아가, 황사와 미세먼지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열띤 취재와 인터뷰를 벌였다.

#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워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 이번 달 퀴즈

- 올해 4월부터 93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는?  
 ① 꽃가루농도 위험지수                      ② 피부질환 가능지수  
 ③ 고속도로 기상지수                          ④ 대기확산 지수
- 제31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 입상작 중, 제주 산지향의 상공에서 위용을 자랑한 구름은?  
 ① 새털구름      ② 뭉게구름      ③ 안개구름      ④ 렌즈구름
- 서기 79년, 이탈리아 남부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한순간에 사라진 도시는?  
 ① 피렌체      ② 폼페이      ③ 토리노      ④ 제노바

### 지난 달 퀴즈 정답

- ③ 구메구메
- ② 연무
- ④ 엽서

### 지난 달 퀴즈 정답자

1. 조한석(경기) 2. 장보경(대구)
3. 김학송(대전) 4. 오영주(전북)
5. 차상례(경북)



##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4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기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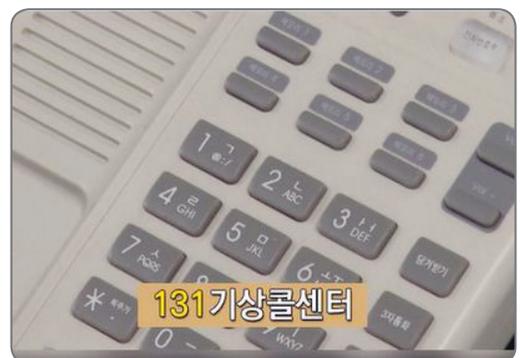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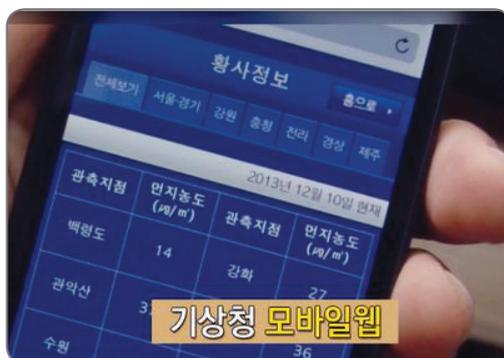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퇴직	3.10	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차장)	조주영	
	3.17	예보국	수치자료응용과	황승언	
	3.24	대전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청장)	서예숙	
승진	3.31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이용섭	
전보	3.31	기상산업정보국	기상자원과	기술서관(과장)	손승희
		부산지방기상청	안동기상대	기술서관(대장)	박종서
		국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기술서관(과장)	연혁진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	기술서관(과장)	신기창
			레이더분석과	기술서관(과장)	이재원
		항공기상청	기술서관	김성현	
		예보국	총괄예보관	기상사무관	함동주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사무관		조익현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3.31	관측기반국	기상기술과	기상사무관	서태건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기상연구관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대	기상사무관	박광오
			구미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이태성
			포항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김승관
진주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유종근			
고용휴직	4.7	기상청	기술서관	이용섭	
전보	4.8	관측기반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육명렬	
			기상산업정보국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	김성균
		대전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청장)	박관영	
		강원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청장)	엄원근	

# 황사로부터 건강 지키기, 기상청과 함께 해요!



문화가 있는 날

[www.culture.go.kr/wday](http://www.culture.go.kr/wday)

02-760-4790

문화가 있는 날과 함께 하는 곳

영화관 / 230곳

공연장 / 75곳

미술관 / 148곳

박물관 / 237곳

문화재 / 25곳

도서관 / 454곳

기타문화공간 / 82곳

(2014. 03. 14 기준)

#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랑 놀자!

